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영훈*

이 연구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 과장(전화: 02-759-5399, E-mail: yhlee@bok.or.kr)

유익한 논평과 도움을 주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함정호 원장과 동북아경제팀 안예홍 팀장, 박석삼차장, 문성민차장,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여러분(장동구 경제연구팀장, 오정근 통화연구팀장, 김기호박사)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차 례 >

I. 머리말	2
II.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의 현황과 특징	3
1. 대외무역 현황	3
2. 남북교역 현황	12
3.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의 비교	19
III.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	21
1. 개요	21
2. 효과분석	22
가. 대외무역	22
나. 남북교역	28
3.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의 경제적 효과 비교	36
IV. 맺음말	40
<참고문헌>	44
<부록 1>	
<부록 2>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이 최근 북한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무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입의 무역에 대한 탄력성과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9~2003년 기간 무역증가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로서, 한국은행이 추정한 동기간 성장률 2.8%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을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 1999~2003년 기간 연평균 1.2%, 대북지원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2.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합치면 연평균 성장률 2.8%를 상회하고 있어, 동 기간 대외무역이 없다면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대외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북한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조, 에너지 및 투자재원의 부족, 사회주의 생산체제상의 문제 등에 기인하며, 남북교역이 그 비중에 비해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북교역의 지원적 성격에 기인한다. 특히 남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비료, 식량 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남북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경제의 남한의존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교역을 포함하여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은데다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기술유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뿐만 아니라 북한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북한의 무역, 남북교역, 북한의 경제성장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C5, F1, O1, P2

I. 머리말

북한경제는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회복의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 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던 북한경제가 1999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연속해서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복세로의 전환이 가능한 이유로서 대체로 1998년 이후의 체제정비 및 경제정책과 남북경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 등을 들고 있다.¹⁾

1998년 이후 김정일 체제가 안정화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경제조치들이 취해져 왔으며, 동시에 이 시기 남북교역을 포함해 대외무역량이 크게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이 북한의 경제회복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외무역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양자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남북교역이 북한무역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민족내부거래’로서의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일반무역과 별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²⁾

연구내용은 첫째, 이들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이전에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의 특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특징들을

1) “최근년 북한의 이러한 경제회복추세는 김정일 정권의 정식 출범에 따른 체제 안정화와 더불어 경제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1998년도 이후 대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무상원조, 금강산관광사업에 따른 외화의 유입 등이 일부 공장가동의 정상화를 초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이해』, 2002, p. 109. 『북한이해』, 2004, pp.139~140

2) 남북한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1995.1)에서 원칙적으로 국내거래로 보고 있으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에서도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물자이동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용어인 무역, 수출,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교역, 반출, 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타 무역과 구분하고 있는데, 포괄범위는 일반적인 무역과 동일하다.

고려하여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교역은 북한무역과 달리 교역의 역사가 짧은데다 성격이 크게 달라 각기 다른 방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종합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남북교역의 한계와 과제를 제시해보자 한다.

II.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의 현황과 특징

1. 대외무역 현황

가. 개요

해방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무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우호가격에 의한 물물교환과 청산계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 대외무역의 약 2/3를 차지했던 사회주의시장이 소멸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가격에 의한 경화결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외화부족은 전력, 에너지, 원자재난을 가중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성 무역을 통해 경제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나. 무역현황

1) 무역에 대한 인식

북한의 무역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³⁾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를 “생산의 인적 및 물질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소비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경제체계”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노선에 따라 북한의 무역에 대한 관점은 초기에는 원료와 연료마저 자체 생산을 강조할 만큼 자립경제에 대한 집착과 폐쇄성이 강하여 수입은 최소한의 생산재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되었다. 더욱이 북한은 주로 대외수출용이 아닌 내수품증산을 위해 설계된 산업설비를 수입함으로써, 설비수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부품수입에 국한하고, 국내기계공업의 발전을 통해 설비를 자체 생산하려고 노력해왔다.⁵⁾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대내지향적·수입대체적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소규모경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초부터 폐쇄적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완화하여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북한이 세계시장에 편입되면서 무역에 대한 강조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내지향적 경제구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왔으며 폐쇄성만 다소 완화시켜 왔다. 그 결과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980년대 말까지 20% 안팎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10% 대로 축소되었다.⁶⁾

3) “우리 당의 대외무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64.

4)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08.

5) Natalia Bazhanova, 양준용 역. 『기रो에 선 북한경제-대외경협을 통해본 실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 112.

6) 이처럼 낮은 무역의존도가 자립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을 표방했던 개혁 이전의 중국도 13.9%의 낮은 무역의존도를 나타낸 반면 1960년대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제무역분업을 추구했던 경제상호원조회의(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국가들의 무역의존도는 40%~80% 대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971~89년 기간 동안 이들 국가들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13.9% 였던 반면, 헝가리 83.7%, 폴란드 43.2%, 루마니아 43.5% 이다. <http://pwt.econ.upenn.edu>. 참고로 주요 국가들의 최근(2000~2002) 무역의존도를 보면, 한국 82.4%, 중국 50.9%, 일본 21.1%, 베트남 112.5%, 대만 100.5%, 폴란드 62.1%, 헝가리 143.6%, 루마니아 74.1% 이다. <http://www.wto.org>

<표 2-1>

북한의 무역의존도¹⁾

(%)

연 도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의존도	20.1	19.7	23.3	28.5	15.1	24.2	17.3	19.5	21.4	12.1	9.2	11.4	14.5

주: 1) 남북교역을 제외

또한 북한무역은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목적에 우선한다는 ‘정경연계’(政經連繫)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이는 사회주의무역의 특성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에 우선적인 의의를 두면서 정치적 경제관계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을 추진하되 순수한 경제관계만을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자본주의시장에 편입하게 되면서 ‘정경연계’원칙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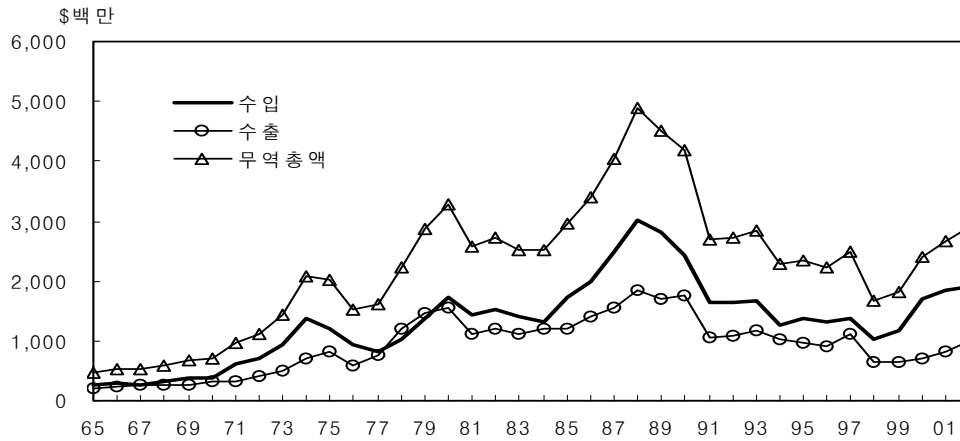
2) 무역추이

북한의 무역규모는 초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영향으로 소폭으로 증가해왔으나 1970~74년 서방 선진국가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대규모 수입추진으로 인한 외채누적⁷⁾과 오일쇼크로 북한 수출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1970년대 중반 무역규모가 감소하였다. 이후 ‘100일전투’와 같은 대중동원운동에 의해 1970년대 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출혈수출의 후유증으로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1980년대 중반에는 1984년 김일성의 소련방문과 1985년 소련과 무역·경제 협력 협정 체결을 계기로 북한의 무역이 크게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대소련 수입이 감소하면서 다시 급격히

7) 1974년 대서방 무역적자는 북한 총무역 적자액 6억 6,700만 달러의 약 80%를 점했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북한의 저급한 생산능력과 대외신용 때문에 곧바로 외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북한은 1971~7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도입한 차관으로 1975년에 가서는 12억4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서방권 외채를 지게 되었다. 서방국가로부터 차관도입의 전면적인 중단과 함께 1976년 들어 북한은 서방에 대한 채무 불이행 사태(default)에 놓임으로써 북한의 대외 신용도는 급락하게 된다.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무상원조와 1999년 이후 본격화되는 남한 및 중국의 지원성 교역확대로 무역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북한의 수출입추이



한편, 북한의 무역수지는 1978년과 79년을 제외하면 늘 무역적자에 놓여 있었고 최근에는 수입액이 수출액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⁸⁾

<표 2-2> 북한의 무역수지¹⁾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1733	945	933	990	858	736	727	905	559	515	566	650	736	777
수입	2437	1639	1622	1656	1242	1316	1250	1272	883	965	1407	1620	1524	1614
무역수지	-704	-694	-689	-666	-384	-580	-523	-367	-324	-450	-841	-970	-788	-837

주: 1) 남북교역을 제외

8)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무상원조 등의 지원성무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적자 전부가 곧 외채로 누적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적자 폭은 1970년대 초 서방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쟁력있는 수출상품의 부족과 비철금속 등 수출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을 낳았다. 이는 다시 외채를 누증시킴으로써 “수입감소 => 생산감소 => 수출부진 => 무역적자 => 수입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후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서방국가들과의 교역이 단절되자 북한은 채무변제의 부담이 없는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합영법(1984)을 제정하고 경제특구(1991)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들 정책 또한 애초 상정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 결과 북한은 현재 심각한 외채위기에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차관 및 대외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북한의 총외채는 1998년 74.3억 달러에 달한다.⁹⁾ IMF는 외채/수출액 비율이 2.2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695달러 이하인 국가를 ‘중채무(重債務)빈곤’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818억 달러로 빈곤 수준을 갓 넘었지만, 외채/수출비율이 10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외채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무역구조

상품별 무역현황

북한은 전 시기에 걸쳐 북한수입의 주된 품목이 기계 및 수송장비, 광물성연료, 재료별 제조공산품 등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제품들과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970년대에는 생산설비의 도입이 주류를 이루어 기계 및 수송장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광물성연료, 특히 코크스나 원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90년대 중반까지 위탁가공용 섬

9) IBRD, *External Debt Statistics, Historical Data 1988~1999*, 李燦雨, “日朝經濟協力の 方案”, ERINA, 2002.8, p. 29에서 재인용.

유원자재의 수입증가로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북한의 식량난을 반영하여 식품의 수입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2-3>

북한의 수입상품별 추이(1965~2003)

(백만달러,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¹⁾	2003 ¹⁾
식품	SITC0	19	30	31	123	43	108	153	269	325
		(15.4)	(11.0)	(4.1)	(10.2)	(3.4)	(7.6)	(10.5)	(19.1)	(20.1)
광물성연료	SITC3	16	46	49	191	394	216	239	171	338
		(12.8)	(16.8)	(6.4)	(15.9)	(30.6)	(15.2)	(16.3)	(12.2)	(20.9)
재료별제조공 산품	SITC6	25	23	106	202	189	315	299	172	128
		(20.2)	(8.4)	(13.9)	(16.7)	(14.7)	(22.2)	(20.4)	(12.2)	(7.9)
기계 및 수송장비	SITC7	40	129	447	380	368	398	295	351	344
		(32.1)	(47.4)	(58.3)	(31.6)	(28.6)	(28.0)	(20.2)	(25.0)	(21.3)
기타		24	45	133	308	293	382	476	444	480
		(19.6)	(16.4)	(17.3)	(25.6)	(22.8)	(26.9)	(32.6)	(31.5)	(29.7)
합계		123	273	766	1,204	1,287	1,419	1,461	1,407	1,6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0년 이후는 HS¹⁰⁾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1965-95년의 SITC¹¹⁾기준과 다른 데. 여기서는 SITC기준의 분류와 연계를 위해 HS기준에서의 '식물동물제품'과 '유지, 조제식품'을 합해 '식품'으로, '섬유제품'을 '재료별제조공산품'으로, '차량'과 '기계류'를 합해 '기계 및 수송장비'로 처리하였음.

자료: UN 통계국, 임강택(1998)에서 재인용,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다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은 재료별 제조공산품, 기타제조품, 식품이며, 이들 각각의 세부 품목으로 보면 1993년까지는 비철금속이, 1994~2000년에는 위탁가공에 의한 섬유제품이, 2001년부터는 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 HS(harmonized system) cod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oreign-trade.com을 참조하기 바람.

11)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SITC0: 음식물과 식용 동물 SITC1: 음료수와 담배, SITC2: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 SITC3: 광물성 연료, SITC4: 동물성 및 식물성기름, SITC5: 화학제품, SITC6: 재료별 제조공산품, SITC7: 기계 및 수송장비, SITC8: 기타 제조품, SITC9: 기타 제품 및 거래

<표 2-4>

북한의 수출상품별 추이(1965~2003)

(백만달러,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¹⁾	2003 ¹⁾
식 품	SITC0		14	24	135	145	101	111	137	128	290
			(12.1)	(11.7)	(24.9)	(12.9)	(9.6)	(10.6)	(18.3)	(22.9)	(39.4)
재 료 별	SITC6		69	109	288	682	532	289	114	43	58
			(61.7)	(52.9)	(53.2)	(60.7)	(50.1)	(27.6)	(15.2)	(7.7)	(7.9)
기 계 및	SITC7		26	10	21	54	98	146	106	103	84
			(1.4)	(4.8)	(3.9)	(4.8)	(9.3)	(13.9)	(14.2)	(18.5)	(11.4)
수 송 장 비	SITC8		2	21	25	58	101	288	240	137	123
			(2.2)	(10.0)	(4.6)	(5.2)	(9.6)	(27.5)	(32.0)	(24.6)	(16.7)
기 타			25	43	72	184	228	213	153	147	181
			(22.7)	(20.6)	(13.3)	(16.4)	(21.5)	(20.3)	(20.3)	(26.2)	(24.6)
합 계			112	207	541	1,124	1,061	1,046	751	559	73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0~03은 HS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앞의 SITC기준과 다른데, SITC기준의 분류와 연계를 위해 HS기준의 '식물제품'과 '동물제품'을 합해 '식품'으로 처리하였으며, '비금속류'를 '재료별제조공산품'으로, '기계·전기전자'를 '기계 및 수송장비'로 '섬유제품'을 '기타제조품'으로 연결하였음.

자료: UN 통계국, 임강택(1998)에서 재인용,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거래형태별 무역현황

북한무역에서 비거래성(지원성)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무역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비거래성무역이란 수출입이나 자본거래와는 달리 대가성이 없이 상대방 국가가 외국에 제공하는 물자나 금전적인 수입이나 지출을 의미한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해방직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자재를 비롯한 많은 물자를 무상으로 원조받았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무상원조는 단절되고 유상원조만을 받아왔으며, 1960년대 말까지 받은 유·무상원조는 20.4억 달러에 달했다.¹²⁾ (2) 1970년대 이후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서방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유치하였는데, 그 규모는 12.4억 달러에 달했다.¹³⁾ (3) 1984년 김일성의 소련방문과 1985년

12) 통일부, 『2000 북한개요』, 2000, p. 385.

13) 그러나 1976년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빠지면서 최근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

12월 소련과 북한간 무역 및 경제협력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계기로 무역이 확대되었다.¹⁴⁾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쌍방간에 종래 군사장비, 원유 등의 거래에 적용해 오던 ‘우호가격제도’¹⁵⁾가 폐지됨에 따라 현물성 원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¹⁶⁾ (4) 북한 식량난의 심화로 1995년 이후 한국 및 서방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던 무상원조가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¹⁷⁾

국가별 무역 현황

북한의 무역추이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주요 무역상대국이 소련과 중국이었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들과 함께 일본이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1990년대부터는 소련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중국과 남한의 비중이 1990년 12.0%에서 2003년 55.1%로 증가

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 주로 구소련, 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통일부, 앞의 글.

14) 이 협약에서는 향후 5년간 양국간의 무역거래량을 지난 5년간 실적의 2.7배를 증액키로 약속했다. 또한 소련은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기간 중 약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다. *Far Eastern Affairs*, 1986, no. 3, p. 188, 나탈리아 바자노바, p. 106에서 재인용.

15) 일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수출가격을 보면, 우호가격이 적용되었던 1990년에는 57.7달러/톤이었으나 국제가격이 적용된 1991년에는 126.1달러/톤으로 2배 정도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年鑑』, 각호.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집체의 메카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330에서 재인용.

16)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4, p. 296. 이와 함께 해방이후 사실상 소련의 무상지원으로 일관되어 온 북한과 소련간의 과학기술협력 또한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종결되었다.

17) 대북한 인도적 지원(무상원조) 비중¹⁾(백만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북지원(A)	287.9	102.3	310.7	333.8	406.8	295.5	492.6	392.2
북한수입(B)	1,380.4	1,319.6	1,387.3	1,012.7	1,176.8	1,679.8	1,846.8	1,895.0
A/B	20.9	7.7	22.4	33.0	34.6	17.6	26.7	20.7

주: 1) 통일부의 통계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대북지원과 북한수입에는 한국의 인도적 지원과 반출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일부, “대북업무지원편람”, 2003

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소련이 차지했던 비중이 육박하게 되었다.

<표 2-5> 북한의 상대국가별 무역¹⁾비중 추이 (%)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1990	1993	1995	1998	2000	2003
무역총액(\$백만)	424	622	1847	3104	2780	4726	4190	2817	2293	1765	2337	2962
중국	42.5	18.5	26.1	21.8	18.2	12.3	11.5	31.9	24.0	23.4	27.8	34.5
소련	42.0	58.9	24.6	27.7	49.5	55.4	53.1	8.0	3.6	3.7	2.0	4.0
일본	7.4	9.2	13.9	18.5	14.6	11.8	11.4	16.8	25.9	22.4	19.8	9.0
한국	0.0	0.0	0.0	0.0	0.0	0.0	0.5	6.1	10.5	18.3	15.6	20.6
기타	8.0	13.4	35.4	31.9	17.7	20.6	23.6	37.2	35.9	32.3	34.7	3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체무역액에는 남북교역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1988년까지의 통계는 UN통계국의 데이터(임강택, 1998)를 이용하였으며, 1990년 이후의 통계는 KOTRA의 통계를 이용하였음.

상대국가별 무역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소련과 중국의 무역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정치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요인은 1990년대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⁹⁾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본격적인 대

18) 대표적으로 1960년대 초 중소분쟁의 영향으로 북·소무역 감소 및 북·중무역 증가, 1960년대 중반 후르시초프의 실각과 중국문화혁명의 영향으로 북·소무역 증가 및 북·중무역 감소, 1983년 랑군폭파사건에 대한 소련측의 북한지지의 영향으로 북·소무역 증가 및 북·중무역 감소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9) 북한의 한·중·일 3국과의 무역은 그 비중이 20% 안팎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이들 국가들의 북한과의 무역비중은 0.05~0.20%로 이들 3국의 대북무역의 경제적 의미는 매우 미미하다.

한·중·일 3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비중(%)

		1999	2000	2001	2002
남북교역	남북교역/남한의 총무역	0.13	0.13	0.14	0.20
	남북교역/북한의 총무역	18.39	17.76	15.08	22.12
북중무역	북중무역/중국의 총무역	0.10	0.10	0.14	0.12
	북중무역/북한의 총무역	20.42	20.38	27.59	25.44
북일무역	북일무역/일본의 총무역	0.05	0.05	0.06	0.05
	북일무역/북한의 총무역	19.32	19.37	17.76	12.74

자료: 각국의 총무역액은 한국무역협회(KITA)의 통계자료를, 북한의 무역액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통계를 이용하였음

북지원을 재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양국관계는 완전히 복원되어 북·중무역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과의 무역은 과거의 채무불이행²⁰⁾ 및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일본여론의 악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남북교역 현황

가. 개요

남북교역은 물품의 대북한 반입과 반출로 구성되는 직·간접 교역을 통칭하며, 크게 거래성교역과 비거래성교역으로 구분된다. 남북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어 점차 증가해오다가, 남한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게 되는 1998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교역국이자 최대의 무역흑자국임과 동시에 대북지원국으로 북한의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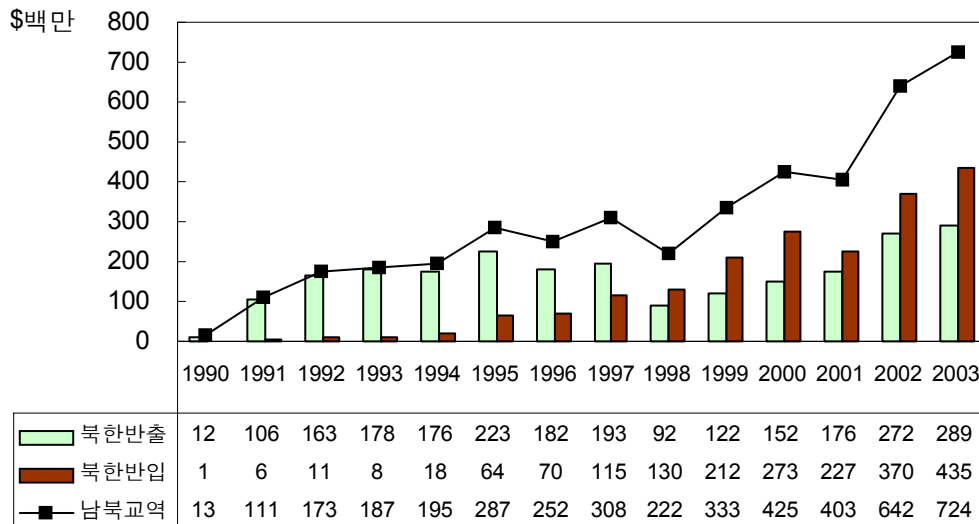
1) 교역추이

남북교역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못미치던 교역규모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1993년 북한의 핵문제, 1996년 북한잠수정침투 등으로 인해 남북교역은 부침을 보였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 1976년 말 북한의 대일채무 약 3억 달러(당시 환율로 800억엔) 중 1982년에 일부(금리 285억엔, 원금 115억엔)를 변제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일 무역액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웅산사건에 대한 일본의 부분적인 경제제재(1983.11)를 이유로 북한은 원리금 및 이자지불을 거부, 지금까지 한번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지호 (2001), pp. 162~163.

국내경기의 회복과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1999년부터 교역량이 다시 급증하여 3억달러를 넘어섰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 거래성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북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 비거래성교역의 증가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림 2-2> 남북교역의 추이



주: 북한을 기준으로 물자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되면 반출, 반대의 경우는 반입임.
1995년 남북교역 금액에는 대북쌀지원 237,213천만달러가 제외되어 있음
자료: 통일부

한편 남북교역의 무역수지를 보면, 북한으로의 반입이 반출보다 커 적자라고 할 수 있으나, 남북교역의 상당부분이 지원성교역임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흑자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순수 외화소득과 관련있는 거래성교역에서는 북한이 매년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북한은 1990~2003년 기간 동안 남북교역에서 약 1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남한은 북한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했다.

나. 상품별 교역현황

남북교역의 상품구조를 보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반입하는 품목은 1991, 92년도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3~96년도에는 섬유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식량지원의 결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상품의 반입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와 화학공업제품 반입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도의 품목별 반입구조를 보면, 농림수산물 28.9%, 화학공업제품 21.0%, 섬유류가 20.5%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물과 화학공업제품은 대부분 대북 쌀지원과 비료지원과 관련된 것이며 섬유류는 위탁가공과 관련된 것이다.²¹⁾

<표 2-6>

북한의 대남 반입상품 구성¹⁾

(백만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반입총액	5.5	10.6	8.4	18.2	64.4	69.6	115.3	129.7	211.8	272.8	226.8	370.2	435.0
농림수산물	29.0	0.6	0.8	18.1	14.4	9.6	14.7	15.1	8.0	9.6	14.3	29.8	28.9
화학공업제품	32.8	50.6	10.9	8.7	2.3	4.9	3.5	4.9	24.3	36.8	30.8	24.2	21.0
섬유류	1.2	7.0	69.9	64.9	54.3	54.1	30.4	22.9	17.9	15.9	23.2	18.2	20.5
광산물	25.1	0.0	0.0	0.0	19.0	18.4	25.4	15.8	20.1	5.9	2.5	1.4	1.4
기계류	0.0	0.2	0.0	0.4	2.4	1.3	11.3	22.3	12.6	11.8	11.7	10.2	6.5
기타	12.0	41.6	18.4	8.0	7.5	11.7	14.7	19.0	17.0	20.0	17.4	16.2	21.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MTI(산업자원부 수출입통계품목 분류)기준으로 분류

자료: KOTRA

북한의 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제품, 철강·금속제품 등 1차상품과 위탁가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수산물은 2003년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수산물의 비중(그중 농산물 12.5%, 수산물 31.0%)이 크다. 섬유제품은

21) KOTRA,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04.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의 확대로 그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33.4%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금속제품은 교역 초기에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반출량이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11.3%를 차지하였다.

<표 2-7>

북한의 대남 반출상품 구성

(백만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반출총액	105.7	162.9	178.2	176.3	222.9	182.4	193.1	92.3	121.6	152.4	176.2	271.6	289.3
농림수산물	9.4	10.4	6.6	8.6	9.5	12.7	14.2	23.7	39.5	47.1	51.1	36.8	44.2
광산물	20.8	27.0	48.9	42.8	38.8	35.5	32.5	2.6	1.8	0.2	2.1	3.2	5.9
섬유류	0.0	2.1	4.7	10.2	12.9	24.4	24.4	42.1	37.6	35.2	31.2	31.6	33.4
철강금속	63.7	51.3	35.4	35.8	36.6	24.3	24.8	22.0	13.3	7.7	5.6	6.9	11.3
기타	6.2	9.3	4.4	2.6	2.3	3.2	4.1	9.8	7.8	9.7	10.0	21.5	5.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TRA

다. 거래형태별 교역현황

남북교역은 거래성교역과 지원적 성격을 띠는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분된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거래성교역은 1995년 이후 감소하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거래성교역은 1995년 시작되어 꾸준히 증가하여 그 비중은 거래성교역에 근접하고 있다.

<표 2-8>

거래성교역과 비거래성교역 추이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거래성	13.5	111.2	173.4	186.6	194.6	276.3	237.8	250.3	143.7	189.0	239.6	236.3	343.0	408.6
비거래성	0	0	0	0	0	11.0	14.3	58.1	78.2	144.4	185.5	166.7	298.8	315.5
합 계	13.5	111.3	173.4	186.6	194.6	287.3	252.0	308.3	222.0	333.4	425.1	403.0	641.7	724.2

거래성 교역

거래성 교역은 크게 단순교역(상업적 거래)과 위탁가공교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성 교역에서 각각의 비중을 보면, 단순교역의 비중이 2003년 55%인 반면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4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이 크다.

<표 2-9> 단순교역과 위탁가공교역 현황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단순교역	13.5	111.2	172.6	179.6	168.9	230.4	163.4	171.2	72.7	89.4	110.4	111.4	171.8	223.6
위탁가공	0	0	0.8	7.0	25.7	45.9	74.4	79.1	71.0	99.6	129.2	124.9	171.2	185.0
합 계	13.5	111.2	173.4	186.6	194.6	276.3	237.8	250.3	143.7	189.0	239.6	236.3	343.0	408.6

단순교역에서 북한의 반출은 반입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다. 북한의 반입 비중이 이처럼 작은 것은 북한의 경화결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북한의 반입에 따른 결제는 대부분 구상무역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2-10> 단순교역에서의 반입과 반출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한반입	1.2	5.5	10.4	4.4	6.9	28.7	17.2	23.8	21.9	21.7	31.9	10.5	4.4	46.2
북한반출	12.3	105.7	162.2	175.2	162	201.7	146.2	147.4	50.8	67.7	78.5	100.9	167.4	177.4
합 계	13.5	111.2	172.6	179.6	168.9	230.4	163.4	171.2	72.7	89.4	110.4	111.4	171.8	223.6

위탁가공교역²²⁾은 남한의 입장에서조차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22) 위탁가공교역은 '노동력거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교역의 실적은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북한이 취득하는 것은 임가공비뿐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리스크가 적어 가장 선호되는 교역형태이며, 북한으로서도 별도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외환거래를 수반하지 않고도 외화획득이 가능한 교역형태로서 1990년대 북한이 가장 주력해온 수출분야이기도 하다. 주요 품목은 섬유와 전기전자 제품이며, 2003년도 각각 86.2%,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

위탁가공교역에서의 반입과 반출

(백만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한반입	0.2	4.0	11.3	24.7	38.2	36.2	29.6	45.9	57.2	52.3	68.4	73.4
북한반출	0.6	3.0	14.3	21.2	36.2	42.9	41.4	53.7	72.0	72.6	102.8	111.6

비거래성 교역

비거래성교역은 경수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기타 협력사업 등의 협력사업용 물자교역과 인도적 지원, 식량차관제공,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차관제공 등의 대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비거래성교역은 3억2천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북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비거래성교역에서는 대북지원이 2억7천만달러로 비거래성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비료지원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이 1억6천만달러, 식량차관제공이 1억달러 등이다.

불구하고, 반입과 반출이 각각 기록되어 많은 물자교역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0달러어치의 원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여 20달러의 가공비를 지불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해 올 경우, 220달러의 남북교역이 발생한 것으로 표기된다.

<표 2-12>

비거래성 교역 추이

(백만달러, %)

	북한의 반입						반출	계	
	경수로	대북지원	KEDO중유	금강산사업	기타협력사업	소계		교역총액	증가율(%)
1995	-	0.2	10.8	-	-	11.0	-	11.0	-
1996	-	1.4	12.8	-	-	14.3	-	14.3	30.0
1997	17.8	8.4	29.0	-	-	55.3	2.8	58.1	327.3
1998	4.0	15.6	19.8	37.6	1.2	78.1	0.1	78.2	30.0
1999	14.4	43.4	39.5	40.6	6.3	144.3	0.1	144.4	84.7
2000	35.6	104.5	11.7	14.6	17.2	183.6	1.9	185.5	28.5
2001	33.7	110.6	3.5	5.8	10.4	164.0	2.7	166.7	10.1
2002	58.6	213.2	2.0	11.9	11.7	297.4	1.4	298.8	79.2
2003	23.7	270.7	0.0	16.1	5.0	315.5	0.2	315.7	5.6

자료: 통일부

남한의 비거래성교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의 지원과 비교해보면, 인도적 지원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으로 구분되며,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³⁾

23) 현재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일국 규모로는 가장 클 뿐만 아니라, UN 다음으로서 개별 국가들 및 NGO를 합한 금액보다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비교(만달러)

	UN기구	개별국가	국제NGO	한 국
1995.6~98.2	17,206	17,273	7,201	28,408
1998.3~12	20,487	7,943	1,769	3,185
1999	20,263	15,100	492	11,376
2000	9,067	26	1,573	11,376
2001	21,389	1,753	2,707	13,539
2002	20,314	3,410	2,003	13,492
2003	11,622	816	3,575	15,762
합 계	120,348	46,321	16,616	97,138

자료: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각년도

<표 2-13>

인도적 지원 추이

(만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누계	
한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1	62,081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28,369
국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2	90,450
국제사회(B)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6,013	203,550
총계(A+B)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19	31,775	293,959
A/(A+B)(%)		80.7	4.5	15.2	9.5	11.6	38.5	27.5	34.0	98.4	44.4

자료: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각년도.

3.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의 비교

앞에서 정리한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의 현황을 통해 그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역은 대내지향적·수입대체형 발전을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그에 따라 수입은 최소한의 생산재에 한해 이루어져 왔고, 수출은 이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수출입상품구조를 보면, 전기간에 걸쳐 수입은 기계 및 수송장비, 원료, 기타 원자재 등의 생산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작은 반면, 수출은 주로 비철금속, 섬유, 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위탁가공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의 영향으로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와 지원성 곡물수입이 증가하고, 비철금속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위탁가공에 의한 섬유수출과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교역의 반출·입 구성 역시 북한무역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입은 대부분 비료, 중유, 위탁가공용 섬유 등 생산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대 이후 농산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남북교역에서는 전체 무역에 비해 기계 및 수송장비, 원료 등 전체산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수입 비중이 작은 반면 농산물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출품목은 초기에는 철강금속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섬유류와 수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무역은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목적에 우선한다는 정경연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어 왔다. 1990년대 전까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은 정치적 관계 변화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역관계를 맺을 국가들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무역이 여전히 정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의도라기보다 역으로 북한에 대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역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경제적 요인 외에 경제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남한은 관계개선(또는 평화)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지향이 ‘햇볕정책’을 계기로 접점을 찾게 되면서 남북교역은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셋째, 비거래성무역의 큰 비중은 북한무역의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해방이후부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 지원성 차관, 그리고 우호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거래성무역에 의존해 왔으며,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는 1995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기 시작하면서 무상원조 비중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남북교역에서도 비거래성교역이 남한으로부터 반입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여타의 국가들보다 크며,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전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의 대북지원은 주로 비료와 식량을 무상 및 차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넷째, 무역수지를 보면, 1978년과 79년을 제외하면 북한은 늘 무역적자에

놓여있었고, 수입이 수출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외채위기에 놓여있다.

남북교역에서도 북한은 적자를 보고 있으나, 대가성 없는 비거래성교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외환거래와 관련있는 거래성교역만을 놓고 볼 때에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1990~2003년 기간 동안 1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단순교역에서 남북교역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 비해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래 북한이 주력해온 수출분야인 위탁가공무역에서도 최근 남한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요컨대 남북교역은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타의 국가들보다도 비거래성교역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거래성교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외화를 공급하고 있어, 현재 북한의 전체 무역중에서 가장 지원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무역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 중심의 반입구조를 보이지만, 비료·식량·섬유 등 기본적인 식량문제의 해결 및 외화획득과 관련된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

Ⅲ. 대외무역 및 남북교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1. 개요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20%안팎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10% 대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증가했던 시기, 특히 대북지원이 집중되었던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시기에 비해 높았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가 집중되었던 50년대 중후반²⁴⁾, 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차관이 집중되었던 70년대 초반, 소련의 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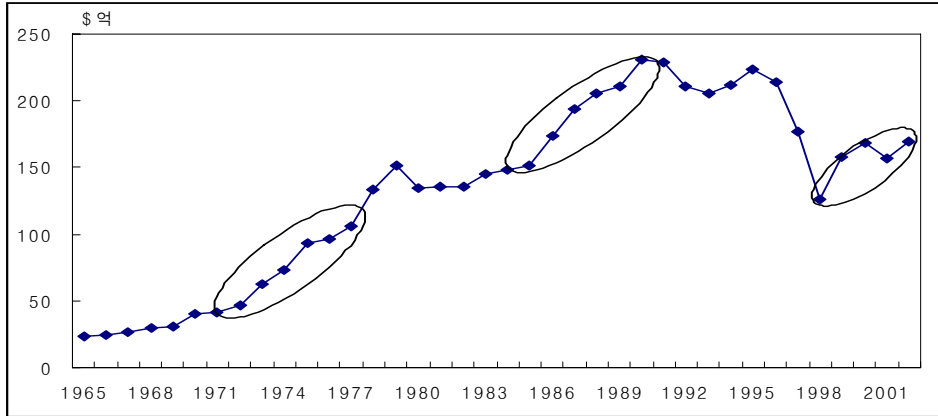
24) 1950년대 달러표시의 동일한 기준에 의한 국민소득 통계가 없어 위 그림에는 제외하였으나,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54-65년까지의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1954~56년 30.1%, 1957~60년 21.0%, 1961~65년 9.9%이다.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및 우호가격에 의한 비거래성 무역이 급증하였던 80년대 후반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남북경협과 국제사회의 대외원조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후반 역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북한의 국민소득 추이

(억달러)



이에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무역의 특성이 반영된 모형을 설정하고 주어진 통계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효과분석

가. 대외무역

1) 분석모형

북한의 수입 대부분은 생산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수출은 단순히 이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은 직접적으로 외화소득을 낳으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만,²⁵⁾ 북한의 수입 대부분은 생산요소로

서 생산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북한 수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import-augmented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수입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수입은 노동, 자본, 기술처럼 직접적인 생산요소는 아니지만 세계시장과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생산함수모형을 확장할 수 있다.²⁶⁾

그런데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에서 도출되는 산출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로 배분되고, 이는 “국민소득+수입”과 같다.

$$Q_t = AK_t^\alpha L_t^\beta M_t^\gamma, \quad Q_t = C_t + I_t + G_t + X_t \quad (1)$$

$$GDP: Y_t \equiv C_t + I_t + G_t + X_t - M_t, \quad (2)$$

이를 고려하여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와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하여 수출과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text{수출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 \quad \frac{\partial Y_t}{\partial X_t} \frac{X_t}{Y_t} = \frac{X_t}{Y_t} \quad (3)$$

$$\text{수입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 \quad \frac{\partial Y_t}{\partial M_t} \frac{M_t}{Y_t} = \gamma - \frac{M_t}{Y_t} \quad (4)$$

25)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수출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외화벌이수단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를 배제하였다.

26) 그것은 첫째,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스톡 증가가 빨라지고, 둘째, 수입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과 지식의 이전 등으로 선진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으며, 셋째, 필수불가결한 원자재의 수입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증가하고, 넷째, 시장확대로 기술혁신의 유인이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성장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Sorenson 1996). 이러한 모형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낮아 총수입의 대부분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장동구, “잠재GDP 추정과 생산함의 인플레이션 지표로서의 유용성 검토”, 『경제분석』 3권4호, 1997.

여기서 $\gamma = \frac{\partial Q_t}{\partial M_t} \frac{M_t}{Q_t}$ 는 식(1) 확대된 생산함수모형에서의 수입에 대한 산출의 탄력도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식(1)과 (2)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ln(Y_t + M_t) = \ln Q = a + \alpha \ln K_t + \beta \ln L_t + \gamma \ln M_t + e_t \quad (5)$$

여기서 Y 는 국민소득, K 는 자본스톡, L 은 생산활동인구, M 은 수입을 각각 나타낸다.

2) 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북한의 GDP, 수출, 수입, 인민경제비, 경제활동인구 등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1965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자료는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경제지표편람』(1995), KDI, 『북한경제지표집』(1996), 통일부와 KOTRA, 그리고 한국은행의 인터넷 자료, 그리고 임강택,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1998) 등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자본스톡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투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기본건설투자²⁷⁾’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석진(2002)의 연구에 근거하여 추정된 1954년도 자본스톡과 매년도 기본건설투자를 이용, 감가상각률을 5%로 가정하여 매년도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²⁸⁾ 자본스톡과 투자를 각각 K , I 라 하고 감가상

27) 기본건설투자란 인민경제비 중 고정재산을 새로 조성하거나 개건확장하기 위한 자금의 지출로서, 건설조립작업액, 생산준비비, 설비비, 비품비 및 기타 기본 건설비로 구성된다. 『경제사전1』, p. 279.

28) 1954년의 자본계수를 0.7로 하고 감가상각률을 0.05로 가정하여 1954년의 자본스톡을 구하였으며, 기본건설투자액이 발표되지 않은 시기의 기본건설투자는 당시 상황을 반영한 가정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일례로 1977년 이후 기본건설투자는 인민경제비와 군사비의 50%를 가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2을 참조. 참고로 북한의 예산지출은 ‘인민경제비’, ‘인민적 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률을 λ 이라 하면 t 기의 자본스톡은 다음과 같다.

$$K_t = I_t + (1 - \lambda)K_{t-1}$$

그런데 북한의 기본건설투자액 추정에 필요한 인민경제비²⁹⁾는 1995~99년 기간 동안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인민경제비는 카플란-무어스틴의 방법(the methods devised by Kaplan-Moorsteen)³⁰⁾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런데 수준(로그변환)변수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노동과 산출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날 뿐 아니라³¹⁾ t 값 또한 매우 낮게 나와, 생산활동인구로 나눈 1인당변수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들은 모두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한 시계열이나³²⁾, 대체로 각 수준변수(자연대수변환값)들 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³³⁾ 수준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29) 인민경제비는 전체 예산지출에서 인민경제에 투입되는 자금으로서, 기본건설투자, 유동자금, 대보수, 인민경제사업비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사전2』, p. 683.

30) <부록 2> 참조

31) 노동과 국민소득간의 음의 관계는 북한의 노동구조의 특수성, 즉 완전고용 이데올로기에 따른 과잉고용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32) 단위근 검정결과(Augmented Dickey-Fuller Test)

	t값	
	수준	1차차분
1인당 산출	-2.542204	-4.416569
1인당 자본	-0.472163	-3.284545
1인당 수입	-2.307300	-4.607814
5% 임계치	-2.945842	-2.945842
1% 임계치	-3.626784	-3.626784

주: 절편을 포함하였으며, AIC 기준에 의해 최적시차를 1로 하였음

33) 공적분 검정(Johansen Cointegration Test)결과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5 % 임계치	Prob.
None	0.441730	41.68918	35.19275	0.0128
At most 1	0.327793	20.70430	20.26184	0.0368
At most 2	0.162999	6.405481	9.164546	0.0994

주: 절편은 있으나 추세는 없으며, AIC기준에 의해 최적 시차를 1로 하였음

3) 분석결과

우선, γ 를 구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³⁴⁾

$$\ln(y_t + m_t) = -0.956225 + 0.769044 \ln k_t + 0.231055 \ln m_t + e_t \quad (5)$$

(-0.386591) (2.821772) (3.031351)

$R^2 : 0.957939$

D.W. : 2.172642

1인당 국민소득과 수입, 1인당 자본, 1인당 수입의 관계는 모두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gamma = 0.23$ 이다.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를 구하면, 식(4)에 의해 $(0.23 - \frac{M_t}{Y_t})\%$ 가 된다.³⁵⁾ 이제 주어진 각 년도의 수출, 수입,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수출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와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를 구할 수 있는데,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수출과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탄력도														
$\frac{X_t}{Y_t}$	0.08	0.04	0.04	0.05	0.04	0.03	0.03	0.05	0.04	0.03	0.03	0.04	0.04	0.04
수입탄력도														
$\gamma - \frac{M_t}{Y_t}$	0.13	0.16	0.15	0.15	0.17	0.17	0.17	0.16	0.16	0.17	0.15	0.13	0.14	0.14

주: $\gamma = 0.24$

34) serial correlation이 있어 AR(1)모형을 적용하였다.

35)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 변수의 시계열 데이터 수가 38개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점 외에 일부 변수들의 통계추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3국을 통해 입수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통계를 제외한 북한의 국민소득, 자본스톡, 경제활동인구 등의 통계는 남한에서 추정된 것으로서 추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1990~2003년 기간 동안의 수출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약 0.04이며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0.15로 3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입은 대부분 생산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탄력도를 이용하여 수출과 수입이 국민소득에 미친 영향을 추계해 보기로 하자. 이는 탄력도와 수출입 증가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frac{\partial Y_t}{Y_t} = \frac{X_t}{Y_t} \frac{\partial X_t}{X_t}$ (식 3)으로 추계되며, 수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frac{\partial Y_t}{Y_t} = (\gamma - \frac{M_t}{Y_t}) \frac{\partial M_t}{M_t}$ (식 4)로 추계된다. 추계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북한무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증가율	1.4	-45.5	-1.3	6.1	-13.3	-14.2	-1.2	24.5	-38.2	-7.9	8.0	16.9	13.2	5.6
수입증가율	-13.2	-32.7	-1.0	2.1	-25.0	6.0	-5.0	1.8	-30.6	9.3	46.4	14.6	-5.9	5.9
$\frac{\partial Y_t}{Y_t} = \frac{X_t}{Y_t} \frac{\partial X_t}{X_t}$ (1)	0.1	-1.9	-0.1	0.3	-0.5	-0.5	0.0	1.3	-1.7	-0.3	0.3	0.7	0.6	0.2
$\frac{\partial Y_t}{Y_t} = (\gamma - \frac{M_t}{Y_t}) \frac{\partial M_t}{M_t}$ (2)	-1.7	-5.2	-0.2	0.3	-4.3	1.0	-0.9	0.3	-4.9	1.6	6.8	1.9	-0.8	0.8
무역에 의한 경제성장률 ³⁾	-1.5	-7.1	-0.2	0.6	-4.9	0.6	-0.9	1.5	-6.6	1.3	7.1	2.6	-0.3	1.1
연평균경제성장률	-2.1(수출 -0.3 수입 -1.7)									2.4(수출 0.3 수입 2.1)				
경제성장률 ⁴⁾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1.8
연평균경제성장률	-3.8									2.8				

주: 1) 수출증가에 의한 경제성장률, 2) 수입증가에 의한 경제성장률

3) 1) + 2)

4) 한국은행의 북한경제성장률 추정치

분석결과를 보면, 북한경제가 침체기였던 1990~98년 기간 동안 무역에 의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1%로, 동 기간 한국은행이 추정 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3.8%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기에 들어섰다는 1999년 이후 대외무역에 의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4%로, 동 기간 한국은행이 추정 한 연평균경제성장률 2.8%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이처럼 대외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저조, 공장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및 투자재원의 부족, 사회주의 생산체제상의 문제 등에 기인한다. 더욱이 경제침체에 비해 경제회복기에 대외무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산설비의 노후화를 비롯한 북한경제 내부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수입과 수출의 영향을 보면 수입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화가 수출에 따른 그것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입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나. 남북교역

남북교역은 그 역사가 짧고, 일반적인 무역(단순교역)은 전체 남북교역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독특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대북무역과는 달리 비료 및 식량지원 등 비거래성교역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데다, 거래성교역에서도 절반 정도는 일반무역과는 다른 위탁가공교역이다. 따라서 앞에서 이용했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부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추계함으로써 남북교역의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북한경제의 주요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남북교역의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국제수지표는 남북교역의 여러 거래형태들의 성격을 일반적인 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며, 여기서 구해진 교역수지를 이용하여 남북교역에 의한 국민소득증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남북교역의 통계는 관세청에 의해 물품의 이동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 집계한 통관통계(通關統計)로서, 서비스나 자본 거래 등은 기록되지 않는다. 국제수지표는 일정기간동안 타국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통관통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가 된다. 대외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경상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국제수지표에서 각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기록된다. 또한 경상수지는 상품의 수출입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 외국과 이루어진 서비스거래를 나타내는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일해 벌어들인 돈과 해외투자결과 발생한 배당 및 이자를 기록하는 소득 수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남북교역은 경상수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항목별로 재분류하면, 거래성교역에서 단순거래는 상품수지로, 비거래성교역에서 대북지원은 경상이전수지로, 그리고 금강산관광수입은 서비스수지로 재분류할 수 있다. 단 거래성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은 ‘노동력거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교역의 실적은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으며, 북한이 취득하는 임가공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위탁가공교역의 교역수지에는 위탁가공료와 수송료, 기타 제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이 취득하는 임가공료는 대체로 위탁가공교역수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³⁶⁾ 비거래성교역의 대북지원에서 현물차관 공여는 차관이란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상지원에 가깝기 때문에³⁷⁾ 경상이전수지로 분류

36) KOTRA의 위탁가공교역 담당자에 따르면 임가공료는 제품과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대체로 교역수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섬유·의류의 경우 생산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위탁가공교역 업체의 생산원가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 쌀과 철도·도로연결공사의 자재·장비 차관제공조건은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율 1%이다. 이처럼 차관의 조건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이기도 하지만 현 단계 북한경제상황이나 남북관계를 볼 때 상환을 전제로 차관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였다. 한편 협력사업용물자교역은 북한에서 대북협력사업을 하는 남한기업체로 물자가 이동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국민소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은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의 교역수지이다.

<표 3-3>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의 교역수지(2003년 기준)
(백만달러)

남북교역의 거래형태	반입	반출	국제수지표의 구성	차변	대변	수지
거래성교역	119.6	289.1				
단순교역	46.2	177.4	상 품 수 지	46.2	177.4	131.2
위탁가공교역	73.4	111.6				
비거래성교역	315.5	0.2	경상이전수지	0.2	315.5	270.5
대북지원	270.7				270.7	
인도적지원	135.0				135.0	
식량차관	102.6				102.6	
남북철도·도로연결공사자재·장비차관	33.0				33.0	
협력사업용물자교역	44.9				44.9	
경수로사업	23.8				23.8	
금강산관광사업	16.1				16.1	
기타협력사업	5.0				5.0	
금강산관광수입			서비스수지			13.1
			소 득 수 지			-

남북교역으로 인한 일차적인 국민소득 증가분은 “상품수지+서비스수지+위탁가공료”로 계산되며, 이차적인 소득증가분은 대북지원(비거래성교역) 중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창출하는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대북지원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구하는데 있어 각 생산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이들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최소한 투입 이상이라 가정하여 대북지원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³⁸⁾

38) 대북지원은 비료, 식량, 증유, 의약품 등 생산재와 구호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호품 대부분은 식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량은 정상적인 노동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재라기보다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

<표 3-4>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 국민소득 증가

(백만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품수지(거래성교역 중 단순거래)	123.6	28.9	46.0	46.6	90.4	163.0	131.2
*위탁가공료(거래성교역 중 위탁가공)	3.4	3.4	5.9	4.0	7.4	10.1	17.2
서비스수지(금강산관광)			206	136	37.2	21.5	13.1
경상이전수지(비거래성교역 중 대북지원)	34.7	35.4	82.9	116.2	114.1	215.2	270.7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국민소득 증가 ¹⁾	17.0	32.3	257.9	186.6	135.0	194.6	161.5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국민소득 증가 ²⁾	161.7	67.7	340.8	302.8	249.1	409.8	432.2
남북교역에 의한 경제성장률 ³⁾	0.6	0.2	2.0	1.2	0.8	1.2	1.0
남북교역에 의한 경제성장률 ⁴⁾	0.8	0.4	2.7	1.9	1.5	2.6	2.5

주: 1) 남북교역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 “상품수지+위탁가공료수입+서비스수지”

2) 남북교역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 = “상품수지+위탁가공료수입+서비스수지+경상이전수지”

3)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경제성장률 = 남북교역에 의한 국민소득증가1)/ 전년도 국민소득

4)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경제성장률 = 남북교역에 의한 국민소득증가2)/ 전년도 국민소득

남북교역으로 인한 국민소득증분(상품 및 서비스수지+위탁가공료)을 전년도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추계한 경제성장률은 1999년 2.0%, 2000년 1.2%, 2001년 0.8%, 2002년 1.2%, 2003년 1.0%로, 연평균 약 1.2%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북지원(경상이전수지)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창출하는 부가가치까지를 포함하여 남북교역에 의한 경제성장률을 구하면, 1999년 2.7%, 2000년 1.9%, 2001년 1.5%, 2002년 2.6%, 2003년 2.5%로, 연평균 약 2.3%로 나타난다. 북한의 1999~2003년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인 점을 감안해볼 때, 남북교역은 북한경제가 양의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재로서 취급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식량난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황보다 식량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클 것이라 판단된다.

2) 남북교역의 북한경제 주요부문에 미치는 영향

거래형태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면, 식량 및 비료지원은 북한의 곡물생산 및 식량배급에, KEDO의 경수로사업 및 중유 공급³⁹⁾은 전력생산에, 거래성교역과 금강산관광은 외화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남북교역의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북한의 식량, 에너지 그리고 외화 등 3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수 있다.

식량: 인도적 지원과 차관

남한의 곡물지원을 보면, 남한은 북한의 2000년 전체 곡물도입의 29%, 2002년 29%, 2003년 4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⁰⁾

<표 3-5> 북한의 연도별 곡물도입 현황

		(만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남한	무상	쌀(직접지원)	15								
		옥수수(간접지원)						10	10	10	
	차관	쌀						30	40	40	
		옥수수						20			
	계		15					50	10	50	50
북한의 도입량		111.2	105.0	163.0	111.2	107.0	172.5	140.0	140.5	120.9	

주: 1) 기존 KOTRA의 통계에서는 북한의 도입량에 남한의 국제기구(WFP)를 통한 간접지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직접지원은 누락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남한의 직접지원을 포함하여 계산

자료: KOTRA,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4의 통계와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 통계를 종합하여 작성

한편 남한의 비료지원량은 1999년 이후 북한의 전체 비료투입량의 약

39) 비거래성교역 중 협력사업용 물자교역은 남한의 대북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교역을 의미하는데, 그것의 영향은 그 자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북협력사업의 효과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북협력사업에 한해 언급하기로 한다.

40) 분석의 편의를 위해 10만톤 이상의 곡물지원에 한해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부록1>을 참조할 것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⁴¹⁾

<표 3-6>

북한의 비료투입량과 곡물생산량

(단위: 천MT)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비료투입량 ¹⁾	104	93	171	157	253	256	281	266
남한의 비료지원					155	300	200	300
곡물생산	3,787	2,596	2,867	4,420	3,837	2,945	3,880	4,196

주: 1) FAO의 보고자료

자료: 곡물생산 및 비료투입량은 FAO, Statistical Data Base(CD-Rom)

이러한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식량증산과 배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로 하자. 우선, FAO가 밝힌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곡물증산의 요인으로 날씨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북한 농민들은 최근 수확량 증가가 비료를 많이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⁴²⁾ 다음으로 북한의 식량배급사정을 보면, 북한의 2001년도 도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량은 1인당 197g/일, 2002년도 292g/일⁴³⁾, 2003년도에는 319g/일⁴⁴⁾로 2002년 전년 대비 48%, 2003년도 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⁴⁵⁾

에너지: 경수로건설사업과 KEDO중유공급

41) 현재 FAO가 밝히고 있는 북한의 비료투입량을 남한의 비료지원량과 비교해보면, 비료 투입량보다 남한의 지원량이 많게 나타나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비료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AO가 밝힌 북한의 비료투입량은 남한의 대북 지원량을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하다면 전체 비료지원의 약 1/2를 차지하는 셈이 된다.

42)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03.10)

43)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02.7)

44) 2003년 9월까지의 평균배급량이다.

45)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003.10)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분배현장 확인 결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북한은 주민들에게 남한 쌀을 kg당 46원, 1인당 300~380g/일, 월 2회 공급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통일부, 『통일백서2004』, p. 167), 이는 FAO/WFP의 보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 에너지지원은 분단이후 최대의 협력사업인 경수로건설⁴⁶⁾과 KEDO의 중유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수로건설의 예상사업비 46억 달러로 책정하고, 한국이 총공사비의 70%(32.2억 달러), 일본이 10억 달러, 나머지는 EU와 미국이, 그리고 미국은 이와 함께 중유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1일 사업의 일시중단 발효에 따라 대부분의 공정이 중단 중이며, 경수로 건설공사비는 2004년 4월말 현재 14.8억 달러(한국 10.7, 일본 3.9, EU 0.2)를 투입하였다.

KEDO중유는 미국의 주도하에 1995년 15만톤, 그리고 그 이후 매년 50만톤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15만톤의 중유가 공급되기 시작하여 2002년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 결정에 따라 공급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총 356만톤을 공급하였다. 중유비용은 미국이 68%를 부담하였으며, 미국의 지원요청에 따라 1995년 이래 총 19개국이 기여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기는 당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작업중단 상태에 있는데다 공사재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수로사업의 재개를 낙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태도에 있다. ‘일시중단’을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영구중지’ 입장을 비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애초 합의한 대로 2003년 1,000MWe급의 경수로 2기가 완성되어 가동되었다면(80% 가동률을 가정할 경우), 이는 약 140억kwh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⁴⁷⁾ 이는 2003년도 북한 전력생산량의 196억kwh의 약 71.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한편 KEDO가 북한에 지원한 중유 50만톤은 화력발전의 경우(한국의 경우) 약 29.2억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으로서 2003년도 북한 발

46) 경수로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남북경협에서 단일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북지원의 유일한 정부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 남북경협 전반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경수로계정으로 나누고 있고, 이들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 2004.4

47) 김정식,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KIEP, 2001, p. 117.

전량 196억kwh의 15%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다. 그동안 연간 50만톤의 중유는 선봉발전소 등 7개 화력발전소에 배분·사용되고 있었으나 중유공급중단으로 연간발전량이 10~15%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⁸⁾

외화: 교역흑자와 금강산관광사업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주로 물자교역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⁴⁹⁾

우선, 거래성교역에서 북한은 매년 1억달러 내외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고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총 15.9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북한무역이 전반적으로 적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교역은 북한의 외화획득의 중요한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1998년 현대는 북한에 금강산관광의 대가로 매달 1,200만 달러를 송금하여 2005년 2월까지 총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로 1998년 11월 8일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는 2003년까지 총 414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의 외화수입은 북한의 무역적자 폭과 외채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의 외화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요컨대 남북교역이 북한경제 세부영역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증산 및 배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외화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에너지지원의 중단으로 전력 및 제조업 등의 발전가능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북한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생산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경제 회복기인 1999-2003년 기간 동안 부문별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연평균 경제성장률 2.7%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4%,

48) 통일부, “금년도 북한의 에너지부문 동향 평가” 2003.12.

49) 그 외 북한이 방문객에 요구하는 외화도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입이나 분석에서 제외한다.

광업 4.8%, 건설업 11.5%이다. 반면 제조업은 2.7%, 전기가스수도업은 2.8%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0.02로 매우 저조하다. 이중 농림어업의 비중이 약 30%로 광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4배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농림어업(대부분 농업)의 생산증가가 최근 북한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력생산과 관련있는 전기가스수도업은 2.8%, 제조업 2.7%에 머물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에너지 및 원자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990년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18%선에서 머물고 있다.

<표 3-7> 북한의 산업구조 및 부문별 생산증가율¹⁾ (%)

	199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림어업	27.4	29.6(4.1)	31.4(9.2)	30.4(-1.9)	30.4(6.8)	30.2(4.2)	27.2(1.7)
광공업	40.8	25.6(-3.9)	25.6(9.9)	25.4(2.2)	26(3.9)	25.8(-2.5)	26.8(2.8)
광업	7.4	6.6(-6.1)	7.3(14.1)	7.7(5.8)	8.0(4.8)	7.8(-3.8)	8.3(3.2)
제조업	33.4	19(-3.1)	18.3(8.5)	17.7(0.9)	18.1(3.5)	18.0(-2.0)	18.5(2.6)
전기가스수도업	5.1	4.2(-9.2)	4.5(6.8)	4.8(3.0)	4.8(3.6)	4.4(-3.8)	4.5(4.2)
건설업	8.6	5.1(-11.4)	6.1(24.3)	6.9(13.6)	7.0(7.0)	8.0(10.4)	8.7(2.1)
서비스업	28.0	35.6(-0.5)	32.4(-1.9)	32.5(1.2)	31.8(-0.3)	31.6(0.2)	32.8(0.7)
국내총생산	100	100(1.1)	100(6.2)	100(1.3)	100(3.7)	100(1.2)	100(1.8)

주: 1) 각 셀의 내용은 산업의 구성비와 증가율(괄호)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3. 대외무역과 남북교역의 경제적 효과 비교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 이후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이후 1999년부터 양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경제회복에 들어섰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1999~2003년 기간 동안 북한무역 증가로 인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4%로 경제성장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역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은 1999~2003년 기간 연평균 약 1.2%이며, 여기에 대북지원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까지를 포함하면 연평균 약 2.3%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3년 중 각각 연평균 2.4% 및 1.2%로서 양자를 합치면 동기간 중 연평균경제성장률 2.8%를 상회하고 있어, 현재 대외무역이 없다면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남북교역은 그 비중과 함께 영향력이 증대해오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기간 동안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지만⁵⁰⁾ 그것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중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남북교역은 중국이나 2001년까지는 일본에 비해서도 교역량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의 대북무역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교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거래성교역의 비중이 남북교역 전체의 절반, 북한 반입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물품의 반입이지만 상품수지의 적자가 아니라 경상이전수지의 흑자로서 북한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북한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남한으로부터는 거래성교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중무역과 북·일무역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무역구조면에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 코크스(광물성생산물), 옥수수, 쌀, 밀가루(식물성생산물) 등 주요 전략품목들을 기본적으로 우호가격으로 수입하고⁵¹⁾ 나머지 일정 분량을 무상원조로 제공받고 있다. 북·중간 무역협정이

50) 남북교역이 전체 무역(남북교역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 1999년 18%, 2000년 18%, 2001년 15%, 2002년 22%, 2003년 23%를 차지하고 있다.

51) 대표적인 예로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기로 하자.

북한의 연도별 원유도입 현황(만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 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50.3	31.7	38.9	57.9	47.2	57.4
기 타	79	42	31	8	8	0	60	10.6	0	0	0	12.5	0

밀약(密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지원의 정확한 규모나 액수를 파악할 수 없으나,⁵²⁾ 공식통계만을 놓고 볼 때 국으로부터의 쌀과 원유 도입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무상원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북지원은 쌀지원과 KEDO 중유공급, 그리고 경수로건설의 비용분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남한에 비해 현저히 작은 편이다. 무상원조에 있어서도 지난 9년간(1995.6~2004.7) 중국과 일본은 각각 2.5억달러로 남한의 10.5억달러에 비해 1/4에 불과하다.⁵³⁾

무역수지 면에 있어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거래성무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실제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대일본 무역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규모 자체가 감소하는데다 방직용 섬유와 기계류 및 전기전자기기의 분야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북한이 얻는 외화수입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북·중무역과 북·일무역의 특성 때문에 이들은 그 비중에 비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합 계	189	152	136	91	110	93.6	110.6	60.9	31.7	38.9	57.9	59.7	57.4
-----	-----	-----	-----	----	-----	------	-------	------	------	------	------	------	------

자료: KOTRA,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4.

52) 중국의 대북한 무상원조 현황 (백만달러,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무상원조액	34.4	32.0	48.4	27.6	69.1	16.0	10.9
비중(무상원조액/중국의 대북한수출총액)	6.4	9.0	14.7	6.1	12.1	3.4	1.7

자료: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01,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년도.
 53) 지난 9년간(1995.6-1004.7) 남한의 대북지원(인도적 지원)은 1조 1,808억원(현물지원)으로 정부 7,270억원(6억 7,829만달러), 민간 4,538억원(3억 7,452만달러)이다. 이를 국제사회와 비교해보면(정부차원) 미국 6억 5천여만달러, EU 3억 4천여만 달러, 중국·일본(2억 5천여만 달러)로, 지원액에 있어 한국이 가장 크다. 통일부, "남북관계 추진현황", 2004.8.31

<표 3-8>

북한의 주요국별 수출입품목 비교¹⁾

(%, 백만달러)

	중				국				일				본			
	품		목		1994	1997	2000	2003	품		목		1994	1997	2000	2003
수 입	광물성생산물		45.4	21.9	27.2	29.2	차량 등 수송기기류		9.4	18.1	19.3	31.5				
	식물성생산물		11.1	39.8	12.5	12.5	방직용섬유 및 제품		58.0	53.3	33.2	24.0				
	기계류/전기전자기기		6.1	4.6	7.9	10.7	기계류/전기전자기기		5.2	8.4	11.5	20.9				
	기타		37.4	33.7	52.4	47.6	기타		27.4	20.2	36.0	23.6				
	합계		100	100	100	100	합계		100	100	100	100				
	수입액		425	535	451	628	수입액		171	179	207	92				
수 출	산동물/동물성생산물		7.3	5.0	11.2	52.4	산동물/ 동물성생산물		13.6	16.3	34.7	44.9				
	비금속과 그 제품		65.8	17.4	26.9	16.0	방직용섬유 및 제품		28.7	30.7	26.8	21.4				
	광물성생산물		12.8	33.3	16.5	8.3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2.6	4.8	9.3	9.1				
	기타		14.1	44.3	45.4	23.3	기타		55.1	48.2	29.2	24.6				
	합계		100	100	100	100	합계		100	100	100	100				
	수출액		199	122	37	395	수출액		323	310	257	174				

주: 1) HS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3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리
자료: KOTRA

첫째, 남북교역이 미치는 영향은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교역은 주로 북한의 식량증산 및 배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외화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에너지지원의 중단으로 전력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발전가능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 대북지원은 당장의 북한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는 있으나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둘째, 편중된 지원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남북교역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임을 보여준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적지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지원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금지되고 있는데, 남한의 대북지원은 이러한 틀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약이 남북교역의 한계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무역은 대내지향적·수입대체형 발전을 추구하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에 의해 수입 대부분은 생산재로 구성되고 수출은 이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입은 기계 및 수송장비, 원료, 기타 원자재 등의 생산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비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 수출경쟁력의 취약으로 항상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초래되었고 이를 지원적 성격의 비거래성 무역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해왔지만, 이러한 비거래성 무역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하여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수출입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와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0~2003년 기간 동안 수입의 영향이 수출에 비해 3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입 중심의 북한무역구조의 특성에 기인한다. 둘째, 수출 및 수입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북한경제가 침체기였던 1990~98년 기간 동안 무역증가에 의한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1%로, 동 기간 한국은행이 추정한 연평균경제성장률 -3.8%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회복기라 하는 1999~2003년 기간 동안 무역증가에 의한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4%로, 동 기간 한국은행이 추정한 연평균경제성장률 2.8%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1989년 시작되어 점차 증가해오다 햇볕정책이 시행된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에는 비거래성교역의 비중이 남북교역 전체의 절반, 북한 반입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여타 국가들의 경

우보다 현저히 크다. 또한 거래성교역에서 북한은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남한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남북교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원성교역’이라 특징지을 수 있다.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국제수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역으로 인한 국민소득증분(상품 및 서비스수지+위탁가공료)을 전년도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추계한 경제성장률은 1999~2003년 기간 연평균 약 1.2%였으며, 여기에 대북지원(경상이전수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약 2.3%이다. 동 기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인 점을 감안해볼 때, 남북교역은 북한경제가 양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무역과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3년 중 각각 연평균 2.4% 및 1.2%로서 양자를 합치면 동기간 중 연평균경제성장률 2.8%를 상회하고 있어, 현재 대외무역이 없다면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남북교역은 북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비중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교역이 여타의 국가들보다 지원적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반면 북한은 북한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흑자를 보고 있는 북·일무역에서는 위탁가공교역비중이 매우 커서 실제 북한의 외화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러한 무역의 특성 때문에 이들 무역은 비중에 비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남북교역이 식량, 에너지, 외화 등 북한경제 주요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문제 해결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북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다. 2000년 이후 남한의 식량 및 비료지원은 국제사회가 지원한 규모의 1/3 및 1/2 정도를 차지하면서, 도시주민에 대한 식량배급량을 2001년 1인당 197g/일에서 2003년도에는 319g/일로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수로사업은 남북교역의 협력사업용물자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 12월 일시 중단으로 향후 전력공급에 차질 발생하였다. 경수로사업이 애초 합의대로 2003년 완공되었다면 현 북한전력 생산량의 70%(80%가동률 가정)에 해당하는 전력공급 가능하였을 것이다. 남북교역으로 인한 북한의 경화수입은 1990~2003년 기간 약 16억 달러로 북한의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보수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은 수준이다.

둘째, 남북교역이 비료와 식량 제공 등 인도적 지원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남북교역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인도적지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지원은 북한핵문제로 인해 금지되고 있는데, 남한의 대북지원도 이러한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역은 최근 북한경제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북교역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외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북한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조, 공장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및 투자재원의 부족, 사회주의 생산체제상의 문제 등에 기인한다.

둘째, 남북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경제의 남한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남북경협 4대 협정, 개성공단,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의 영향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역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남북교역을 포함하여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최근 북한의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수산물이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경화부족으로 기계·설비 등의 생산재와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남한과의 교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북한이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경화부족현상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남북교역도 북한핵문제 등 정치상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남북교역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넷째,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기술유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뿐만 아니라 북한자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생산설비의 보수·교체가 늦어질수록 설비의 노후화정도는 가속화하여 경제회생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철용. “사회주의 사회에서 수출무역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리해”. 『경제연구』. 1999년 제1호.
- 김철환. “한국의 수출과 성장의 인과분석: 재조명”. 『경제학연구』 43(1). 한국경제학회. 1995.
- 리명숙. “현시기 수입무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2003년 제4호.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1995.
-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과제”. 서울: 한국은행. 2002.
-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 과거·현황·전망』. 서울: 한울. 2000.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Kaleckian CGE모델 분석”. 고려대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2000.
- 임강택. “북한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카니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장동구. “잠재GDP 추정과 생산갭의 인플레이션 지표로서의 유용성 검토”. 『경제분석』 3권4호. 1997.
- 조명철 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요철.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간의 관계분석”. 『경제분석』 8권3호. 한국은행. 2002.
- 최해범. “한국에서의 수출과 성장간의 인과성 검증”. 『경제학논집』 10권 1호. 2001.6.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1996.
- 한국무역협회. “2002년도 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2002.8.

- 한국무역협회. “남북위탁가공교역 업체 실태조사”. 2000.5.
- 현대아산. “현대아산 남북경협 사업”. 2004.7.
- FAO/WFP.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10.
- _____.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2.7.
- Bazhanova, Natalia. 양준용 역. 『기로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본 실상』.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 李燦雨. “日朝經濟協力の方案”. Niigata: ERINA. 2002.8.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or.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KOTRA. <http://www.kotra.or.kr>
- 『경제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부록 1> 인도적 지원

기 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1995년	2억3,200만달러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정부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462억원
2000년	7,863만달러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 944억원(1\$당 1,200원 적용)
2001년	7,045만달러	- 내의 150만별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 (1\$당 1,296원 적용)
2002년	8,375만달러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2003년	8,702만달러	- 비료 30만톤 지원(6,698만달러/83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달러/191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6만달러/8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50만달러/6억원)

기 간	규 모	내 역
'95.11~'97.5	496만달러 (39.7억원)	- 식량 10,638톤, 담요, 라면, 영말 등 * 국제적십자연맹 경유
'97.6~'97.7	850만달러 (75.7억원)	- 한적창구 : 식량 43,511톤, 비료 2,000톤, 라면 15만상자
'97.8~'97.10	890만달러 (81억원)	- 한적창구 : 식량 38,674톤, 식용유 27만리터, 영양제 등
'98.3	17만달러 (2.8억원)	- 한적창구 : 비료 800톤
'98.4~'98.6	935만달러 (130.9억원)	- 식량 30,253톤, 식용유 26만리터, 한우 500두, 비료, 소금 등 * 대한적십자사 3차지원
'98.9~'98.12	1,133만달러 (141.6억원)	- 식량 45,741톤, 소 701두, 식용유 35만리터, 설탕, 의약품 등 * 대한적십자사 3차 추가지원
'99년도	1,863만달러 (223.6억원)	- 한적창구 : 식량 7,196톤, 비료 4만톤, 씨감자, 식용유, 라면 등 - 독자창구 : 식량 5,051톤, 비료 1,484톤, 젖염소 450두, 의약품 등
2000년도	3,513만달러 (421억원)	- 한적창구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1년도	6,494만달러 (844억원)	- 한적창구 : 286억원 ·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부록 2> the methods devised by Kaplan-Moorsteen

예를 들어 1995년도 인민경제비 추정과정을 보기로 하자. 1994년도 세출 191.8억 달러, 인민경제비 130.3억 달러, 2000년도 세출 84억 달러 인민경제비 38.4억 달러로 주어져 있으나 1995-1999년은 공백상태이다. 1995-1999년 기간의 인민경제비추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I(94)$ 과 $I(95)$ = 1994, 95년도의 인민경제비 증가지수

$I'(94), I'(95), I'(96)$ = 1994, 95, 96년도의 세출 증가지수

$I''(94), I''(95), I''(96)$ = 1994, 95, 96년도의 인민경제비의 추정증가지수

α = 1994-2000년간의 인민경제비 증가지수의 평균증가율

β = 1994-2000년간의 세출 증가지수의 평균증가율

$$I''(95) = I''(94) \times \frac{I(95)}{I(94)} \times \frac{(1 + \alpha/100)}{(1 + \beta/100)} = 0.7702$$

1995년도 인민경제비 = $130.3 \times 0.7702 = 100.4$ (억달러)

연도	세출	세출증가지수	인민경제비증가지수(추정)	인민경제비(추정)
1994	191.8	1		130.3
1995	157.8	0.8227	0.7702	100.4
1996	118	0.6152	0.5391	70.2
1997	91.3	0.4760	0.3905	50.9
1998	93.1	0.4854	0.3727	48.6
1999	93.9	0.4896	0.3519	45.9
2000	84	0.4380	0.2947	38.4
평균(1994-2000)		-0.1286	-0.1842	

* 굵은 글씨는 주어진 통계수치이며, 얇은 글씨는 추정치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2000) 참조.